

##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「안전한 일터 지킴이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
### 1. 관련 기사

- 1.13.(화) 이데일리(온라인), “안전은 상시”라면서...10개월 계약에 갇힌 안전지킴이’ 관련

- 신규 채용한 안전 지킴이 계약기간이 ‘10개월’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.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.
- 단기 계약을 반복하기보다, 한시직 공무원이나 전문관 제도처럼 2~3년 단위로 안전 지킴이를 선발한 후 체계적인 교육·훈련을 거쳐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대안일 수 있다.

### 2. 설명 내용

- 「안전한 일터 지킴이」 사업은 관련 업종 퇴직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활용하여, 산업안전 감독·지도 등이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순찰 및 기술지원을 위해 2026년도 신설된 직접일자리 사업임.
- 안전관리자 등 경력이 있는 퇴직자의 경험과 연륜을 적극 활용해 현장 지도의 수용성을 높여 소규모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임.
  - 「안전한 일터 지킴이」 참여자는 퇴직자의 안전관리 전문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, 중식보조비 등을 포함해 약 월 350만원(세전)이 지급될 예정임.

- 올해는 「안전한 일터 지킴이」의 본사업에 실시예 앞서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
- 올해 사업운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건설산재예방감독과	책임자	과 장	황효정 (044-202-8935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수 (044-202-8937)

